

1. 오늘 복음말씀과 가장 관련 없는 것을 고르세요.



2.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 ① 언니를 도왔다.
- ② 음식을 판데고 있었다.
- ③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 ④ 기도하고 있었다.

3. 마르타가 예수님께 한 말을 무엇일까요?

- ① 마리아에게 저를 도와라고 말해 주세요.
- ② 좋은 말씀을 해 주세요.
- ③ 병을 고쳐주세요.
- ④ 따귀를 짚아주세요.

4. 다음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요?

너는 많은일을 염려하고
 [] 하는구나.

- ① 준비 ② 대비
- ③ 고هن ④ 걱정

정답은 7월 26일(금) 까지 우편(주보하단참조)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그분께 내맡기십시오.
 (1베도 5,7)



연중 제 16주일
 (농민 주일)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룻카 10, 42)

마르타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친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르타는 동생 마리아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마르타가 생각하고 원하는 모습은 자기를 도와주는 것인데,
 마리아가 그와는 반대로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럴때마다 우리는 속상함을 느끼게돼요. 그렇게 속이 상하면,
 그 상대방을 미워하게되죠. 그럴때, 마르타는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저를 도와라고 동생에게 알려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하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마르타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했다고만 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화 낼일은 아니예요.

시중드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선택한 일에
 걱정과 염려는 버리고 최선을 다해 행동한다면
 우리역시도 좋은 몫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좋은 몫을 선택할 수 있는 한 주 보내세요.♡



성광

학년

이름

시력명


1독서 **여행** 


✦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18,1-10

그 무렵 ¹ 주님께서서는 마므레의 참나무들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은 한창 더운 대낮에 천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² 그가 눈을 들어 보니 자기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천막 어귀에서 달려 나가 그들을 맞으면서 땅에 엎드려 ³ 말하였다. “나리, 제가 나리 눈에 든다면, 부디 이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⁴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시어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십시오. ⁵ 제가 빵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의 곁을 지나게 되셨으니, 원기를 돋우신 다음에 길을 떠나십시오.” 그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⁶ 아브라함은 급히 천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 반죽하여 빵을 구우시오.” ⁷ 그러고서 아브라함이 소 떼가 있는 데로 달려가 살이 부드럽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그가 그것을 서둘러 잡아 요리하였다. ⁸ 아브라함은 엉킨 젖과 우유와 요리한 송아지 고기를 가져다 그들 앞에 차려 놓았다. 그들이 먹는 동안 그는 나무 아래 서서 그들을 시종들었다. ⁹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댁의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그가 “천막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¹⁰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내년 이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터인데, 그때에는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마리아수녀의
주일 복음 그림
- 바오로딸쿤텐츠

2독서 **여행** 

✦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1,24-28

형제 여러분, ²⁴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며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가 이렇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²⁵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당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완수하라고 나에게 주신 직무에 따라, 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²⁶ 그 말씀은 과거의 모든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져 있던 신비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가 이제는 하느님의 성도들에게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²⁷ 하느님께서서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 나타난 이 신비가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지 성도들에게 알려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신비는 여러분 가운데에 계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영광의 희망이십니다. ²⁸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굳건히 서 있게 하려고, 우리는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타이르고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여행**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38-42

그때에 ³⁸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 들였다. ³⁹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⁴⁰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종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종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와라고 동생에게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⁴¹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⁴²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